

사람에게는 옳은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25 – Ted Hildebrandt와 Chatgpt의 속담
이야기

험준한 산맥과 고대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조용한 왕국에 용맹한 제임스라는 젊은 전사가 살았습니다. 용감하고 단호한 제임스는 자신의 이름을 전설과 지식의 장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겸손한 대장장이였던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들아, 지혜는 힘보다 낫다. 옳아 보이는 길도 있지만, 그 끝은 파멸로 이어진다."

하지만 제임스는 고집이 세고 거만했으며, 개인적인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상쾌한 아침, 마을 곳곳에 끔찍한 짐승이 근처 계곡을 침략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짐승은 농작물을 먹어 치우고 나그네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왕은 그 괴물을 물리치는 자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제임스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경고와 조언, 그리고 어머니의 간청을 무시한 채, 제임스는 칼을 들고 홀로 길을 나섰다. 그의 가슴은 확신으로 불타올랐다. 그늘진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마다 마치 운명이 그를 앞으로 이끌어 주는 듯 확신에 차 있었다.

길을 가던 중 제임스는 길가에 앉아 있는 늙은 은둔자를 만났다. 흐릿하고 먼 곳에 있는 그의 눈은 마치 그의 육체를 꿰뚫어 보고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돌아가라, 애야." 노인이 조언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을 확신하며 이 길을 지나갔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구나."

제임스가 비웃었다. "난 그들과 달라. 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잘 준비돼 있어."

은둔자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오래된 속담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 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제임스는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계속 나아갔다.

깊은 계곡 속에서 제임스는 마침내 그 짐승을 발견했다. 강만큼이나 긴 뱀이었는데, 검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비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뱀은 얼음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음을 바라는가, 젊은 전사여?"

제임스는 번뜩이는 칼날로 공격하며 돌격했다. 싸움은 격렬했다. 그의 공격은 빨랐지만, 뱀의 가죽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부상을 입고 지쳐 궁지에 몰린 제임스는 힘만으로는 이 교활한 괴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뱀의 눈이 빛났다. "넌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지." 뱀이 씩씩거렸다. "하지만 넌 네게 주어진 모든 현명한 조언을 무시했어." 마지막으로 씩씩 소리를 내며 그는 제임스의 심장 깊숙이 송곳니를 꽂았다.

며칠 후, 늙은 은둔자가 계곡으로 들어와 부러진 검과 죽은 전사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는 혼잣말을 했다. "모두 자기 대의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그는 야고보 옆에 석탑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안에는 지혜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아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잠언
16:25)

왕국 전역의 모든 마을 광장에서 제임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용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숙한 경고이자 현명한 경고로서 말입니다.